

① 프롤로그

유무선 통합 서비스 시대 도래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통신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소리 소문 없이 유무선 통합 서비스 논의는 계속 있어 왔지만, 올해들어 본격적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BT를 시작으로 프랑스텔레콤이 불을 당겨 유럽은 이미 FMC 중심에 위치했다. 국내에서도 LG 텔레콤의 '기본존'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FMC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탄막기 업체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잇따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유선과 무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 | 김중을 기자(모바일타임스)

현재 통신업계에는 3개의 트렌드가 있다.

우선 브로드밴드의 급격한 보급률을 들 수 있다. 브로드 밴드 가입자는 2억명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 5억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모바일 음성통화 사용의 증가이다. 셀룰러망의 음성 트래픽은 고정망의 트래픽을 조금씩 침식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고정과 무선의 트래픽 비율은 1대 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브로드밴드(IP)가 가져온 VoIP이다. 2009년 음성 트래픽의 10%가 VoIP로 이행할 것 이란 예상도 있다.

이 세 가지의 트렌드는

유무선 통합과 무관하지 않다. FMC(Fixed Mobile Convergence)라고 불리는 이 기술의 핵은 IMS(IP Multimedia Subsystem)에 있다. 현재 3GPP가 표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IMS와 VoIP의 표준으로 일컬어지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를 결합시키면 푸시투토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다.

IMS의 메리트는 두 가지 정도이다. 1개의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1개의 단말기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키아는 현재 텔레콤이탈리아, 프랑스텔레콤, 엘리사 등의 서비스 사업자들과 IMS제공을 위한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있다. SIP/IMS의 구축은 그러나 최종형이다. 과도기에 FMC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술로서는 UMA(Unlicensed Mobile Access)가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2년~3년은 UMA가 주목을 받고, IMS/SIP로의 이행은 2008년~2009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 주목 'UMA'

FMC의 과도기 기술로 주목받는 UMA는 무선랜 같은 면허가 불필요한 주파수대를 경유해 셀룰러 망에 접속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가 옥내 커버리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UMA 대응 단말기가 있다면, 무선랜(즉 VoIP)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무선랜을, 그 외 지역에서는 셀룰러망을 이용할 수 있어 통화 중단없이 심리스가 가능한 것이다. UMA 단말기는 모토로라·삼성전자·노키아 등이 출시하고 있다.

최초 FMC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영국 BT도 UMA를 이용하고 있다. 작년 9월에 'BT Fusion' 이란 FMC 서비스를 개시한 BT는 허브와 연결되는 통신기술로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무선랜을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UMA는 올 초부터 사실 업계 화두로 떠오른 상태였다. 작년 9월 영국의 BT가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도 있었지만, 2월에 열렸던 모바일 업계 최대 전시회였던 '3GSM 월드콩그레스 2006'에서 노키아 CEO가 주제 발표로 '휴대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VoIP 물결'을 들고 나왔던 것.

주제 발표를 통해 오히려 노키아 CEO는 현재 모바일 업계는 데이터 통신의 이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VoIP 등으로 음성통화가 오히려 위협 받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선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확보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VoIP가 모바일로 이행하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는 옥내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유선과 무선의 양 사업을 가진 하이브리드형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서비스 1개로 유무선을 묶어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또 기업입장에서 보면 유선과 무선에 모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상은 바야흐로 FMC 시대로 가고 있다."(당시 노키아 CEO 기초연설문 일부)

대형 인수합병도 예상

그동안 통신 업계는 모바일이 주도해왔다. 물론 그 이전에 유선이 모바일을 압도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건 모바일이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90년대 이후 모바일이 세상 전면에 등장하면서 유선은 거의 기를 펴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KT가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을 넘겨줄 때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혹은 다시 경영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까?

모바일이 유선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은 이후, 유무선 통합 시대를 맞아 업계는 다시 재편 움직임에 들어가게 됐다.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로 간주하더라도 상호 윈윈 차원에서 손 잡을 일은 비밀비재하게 된 것이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들의 한치 양보없는 싸움 앞에서 그 어떤 업체가 승자가 될 것인지, 이 또한 FMC 시대를 지켜보는 재미일 듯하다. **K**